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 들어가면서 」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가 풍성했지만, 안타깝게도 이것들을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무질서가 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사랑 없음”으로 진단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참된 사랑인 아가페(ἀγάπη)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바울의 사랑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15가지 색으로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무지개 색깔이 어디서부터 빨간색이고 어디서부터 주황색인지 분명히 나눌 수 없는 것처럼, 바울이 말한 사랑의 15가지 특성 또한 서로 겹쳐 있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이국진,『사랑』). 이 사랑의 15가지 모습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 사랑을 시작하며 」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적극적인 순종의 행위이며, 관계를 성숙으로 이끄는 거룩한 삶입니다. 순교재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아가페)을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대상 세 명(또는 그룹)을 기록해 봅시다. 나는 이 사랑을 누구에게 적용하겠습니까?

1)

2)

3)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1. 교회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랑 없는 언어(고전 13:1)

2) 사랑 없는 능력(고전 13:2)

3) 사랑 없는 희생(고전 13:3)

2. 오래 참음: 사랑의 시작

- 사랑의 속성 열다섯 가지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 사랑의 속성 열다섯 가지 가운데에는 “오래 참음”과 비슷한 표현이(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두 번 더 등장합니다. 바울은 사랑의 시작과 끝을 모두 인내로 표현합니다.
-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 사랑의 결정적인 차이는 오래 참음에 있습니다. 에로스는 인내할 수 없으나, 아가페는 죄인된 우리(가치 없는 것)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베드로후서 3:9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3. 오래 참음에 대한오해

1) 오래 참음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에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상황이 있고, 상담과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환경을 바꾸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란,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도 결과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다윗의 광야).

2) 오래 참음은 벼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참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쌓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계산하고, 기록하며, 참고 견디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폭발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참된 인내가 아니라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17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3) 오래 참음은 죄에 대한 용납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은 죄를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그대로 둔 채 방치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지적하는 것을 사랑이 없다고 오해하는 것이 더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이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며, 그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함께 견디는 사랑의 인내입니다.

4.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

1) 오래 참음이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선하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맡기는 적극적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은 현실 앞에 주저앉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다는 믿음을 붙들고 서 있는 신앙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는 그분의 때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견뎌냅니다(야고보서 5:7-8).

2) 오래 참음이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을 나올 때 가까운 길이 아닌 홍해 길로 인도받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 홍해 길로 인도하셨다"(출 13:18)고 말씀하며, 그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더디게 보일지라도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광야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3) 오래 참음이란 사람을 견디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용서라기보다는 용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용납된 존재입니다. 용서가 잘못의 숫자를 세는 것이라면, 용납은 숫자를 세지 않고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넓은 품입니다.

골로새서 3:12-13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랑은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상대를 항복 시킬 수 없는 대상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보여 준 진실한 사랑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박영선).

4) 오래 참음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십자가의 사랑에 물드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이끕니다.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내는 고통이 됩니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34:6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나눔 질문

1.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나에게 인내가 요구되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 상황에서 나를 가장 조급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지 순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새해 첫 순모임으로 모였습니다. 한 해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